

이번 역은 문화1호선입니다

2021 문화1호선 포럼 자료집

2021 문화호선 포럼 자료집

이번 역은 문화호선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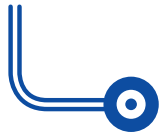
주최 | 부천문화재단 · 부평구문화재단 · 영등포문화재단

주관 | 영등포문화재단



CONTENTS

목차



04p

문화호선 출발합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PM)

05p

철도가 만들어준 “경인京仁”이라는 아이덴티티

김시덕 (도시문학학자)

10p

1호선, 시민에게 예술로 다가가다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15p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세라하나코 (샌드아티스트)

24p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30p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_토의 및 Q&A

좌 장 :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PM)

참여자 : 부 천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부 평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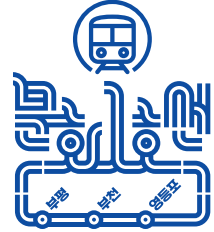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영등포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전문가 김시덕 (도시문학학자)



PROGRAM

행사정보



행사 개요

행 사 명 : 2021 문화1호선 포럼 (이번 역은 '문화1호선'입니다)

행 사 일 시 : 11월 12일(금) 14:00~16:30

장 소 : 술술센터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0-2)

주 최 : 부천문화재단·부평구문화재단·영등포문화재단

주 관 : 영등포문화재단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및 내용
들어가기	인사말
14:00~14:10	문화1호선 출발합니다. 사 회 :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인사말 :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플랫폼	이번 역은 1호선입니다.
14:10~14:40	철도가 만들어준 “경인 京仁”이라는 아이덴티티 발제 : 김시덕 (도시문화헌학자)
출 발	이번 역은 부천-부평-영등포 입니다.
14:40~15:25	(부천) 1호선, 시민에게 예술로 다가가다 발제 :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부평)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발제 :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세라하나코 (샌드아티스트)
	(영등포)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발제 :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15:25~15:35	휴식
순 환(토론)	이번 역은 문화1호선입니다.
15:35~16:25	왜 우리는 문화1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 좌 장 : 최정한 - 부 천 :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 부 평 :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 영등포 :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16:25~16:30	폐회

인사말

문화1호선 출발합니다.



시작의 말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법정문화도시인 부천문화재단과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예비문화도시인 영등포문화재단은 1899년 착공된 1호선으로 이어져 온 도시의 발전과 변화 과정의 공통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호선으로 연결된 도시 부천, 부평, 영등포는 함께 도시를 바라보고 문화적 연대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작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첫 번째 문화1호선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1호선의 사회적, 장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늘 포럼을 통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부는 1호선을 축으로 한 도시의 역사성, 지역성, 장소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선생님의 기조 발제와 함께 ‘이번 역은 부천, 부평, 영등포입니다’에서 부천, 부평, 영등포에서 추진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2부는 ‘왜 우리는 문화 1호선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토론자와 발제자가 함께 토론합니다.

인사말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20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평구문화도시 총괄기획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사이 2019년에 부천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때 부평구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영등포구는 예비문화도시를 신청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천, 부평, 영등포 이렇게 1호선 라인의 축을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부천문화재단의 송경년 대표와 부평구문화재단의 이영훈 대표,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의 강원재 대표와 함께 상의해서 ‘문화1호선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호선은 70~80년대를 지나 산업화의 과정을 거쳤고, 경인선을 따라서 현대의 역사를 공유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각기 따로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 도시는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2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 소식에 여러 도시가 ‘문화1호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거치면서 이후의 전망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랫폼 이번 역은 1호선입니다.

철도가 만들어준 “경인 京仁”이라는 아이덴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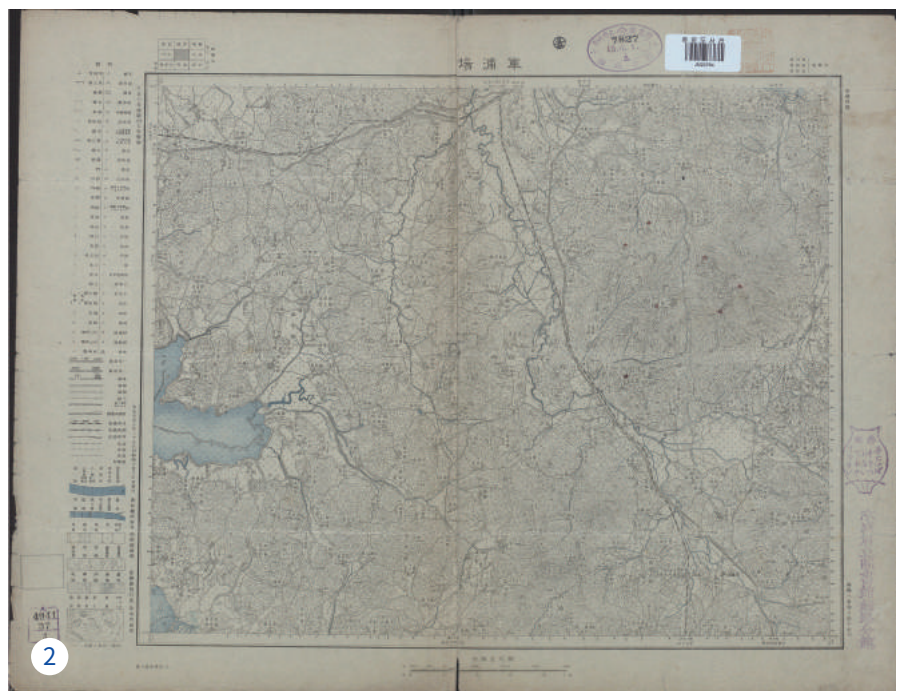
발제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 기조 강연은 당일 라이브 방송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관련하여 일부 자료만 공유합니다.

<경인선>이 만들어내는 <경인> 아이덴티티 -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

1. <경인>의 원형 : 인천도호부, 부평도호부, 부천군, 시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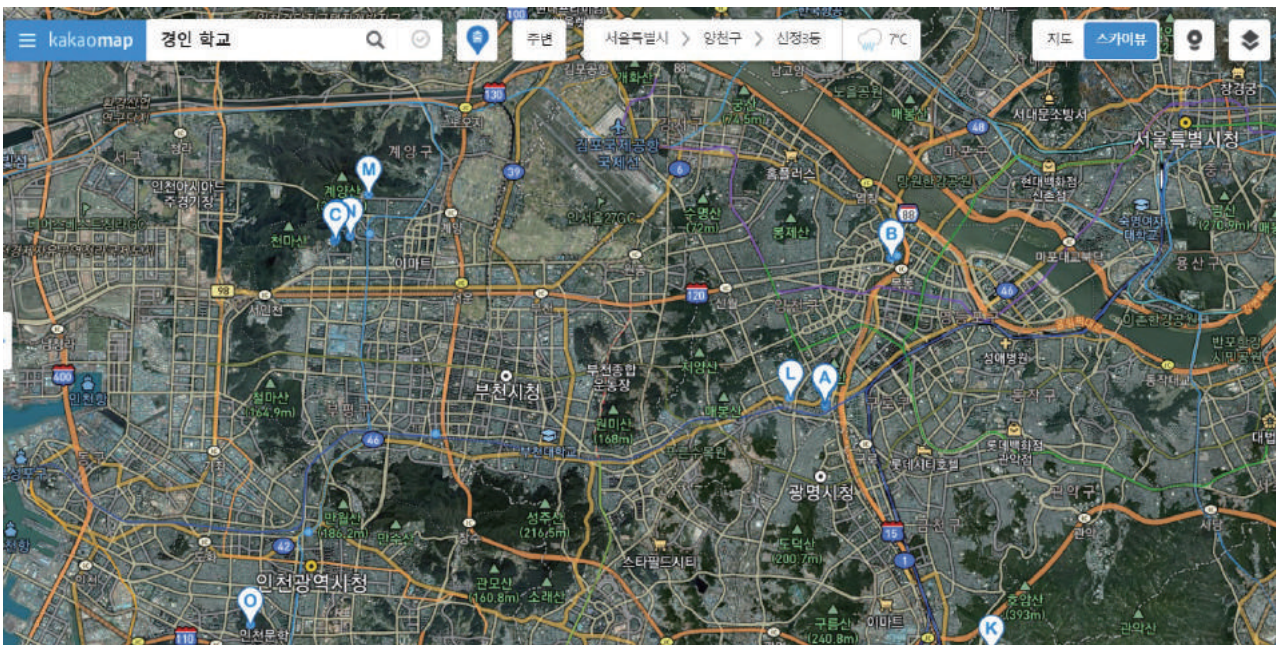




철도가 만들어준 “경인 京仁”이라는 아이덴티티



2. <경인>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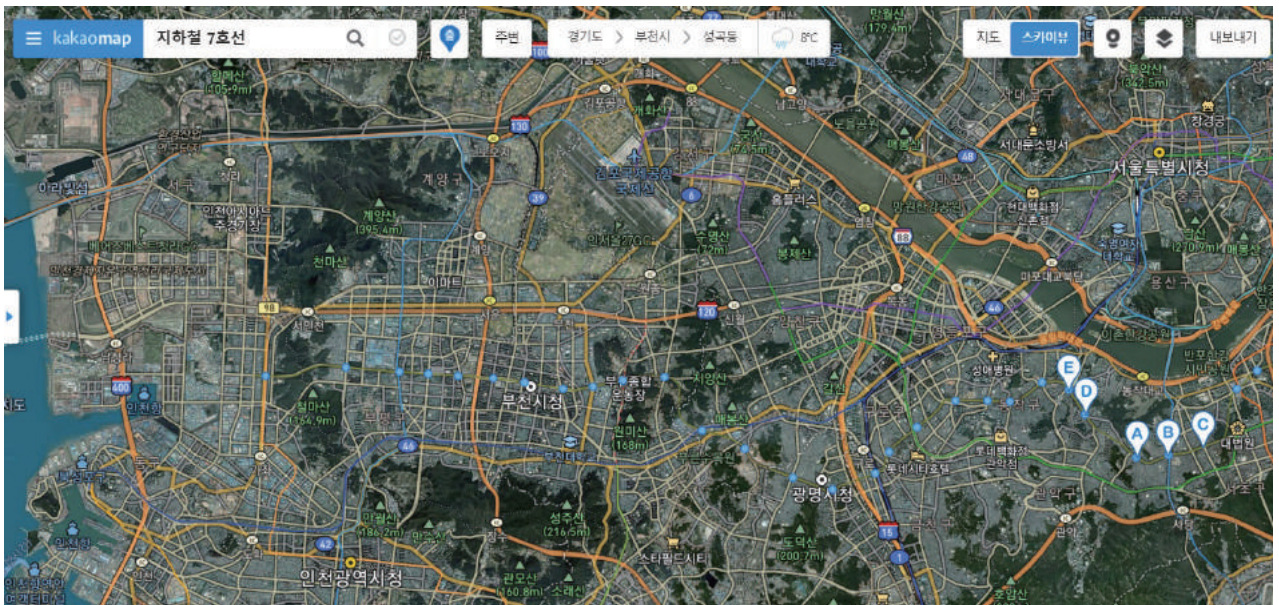




3. <경인선>적인 것 : 공장, 군대, 영단주택, 청요리



4. 수도권 전철7호선 : 두 번째 <경인선>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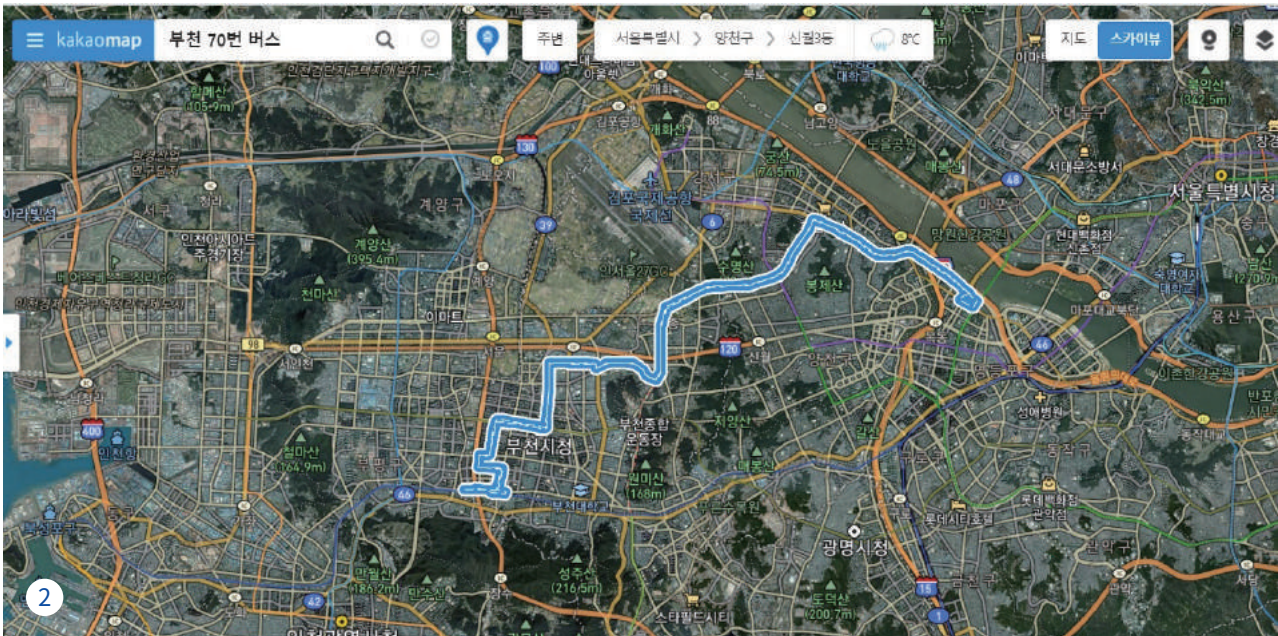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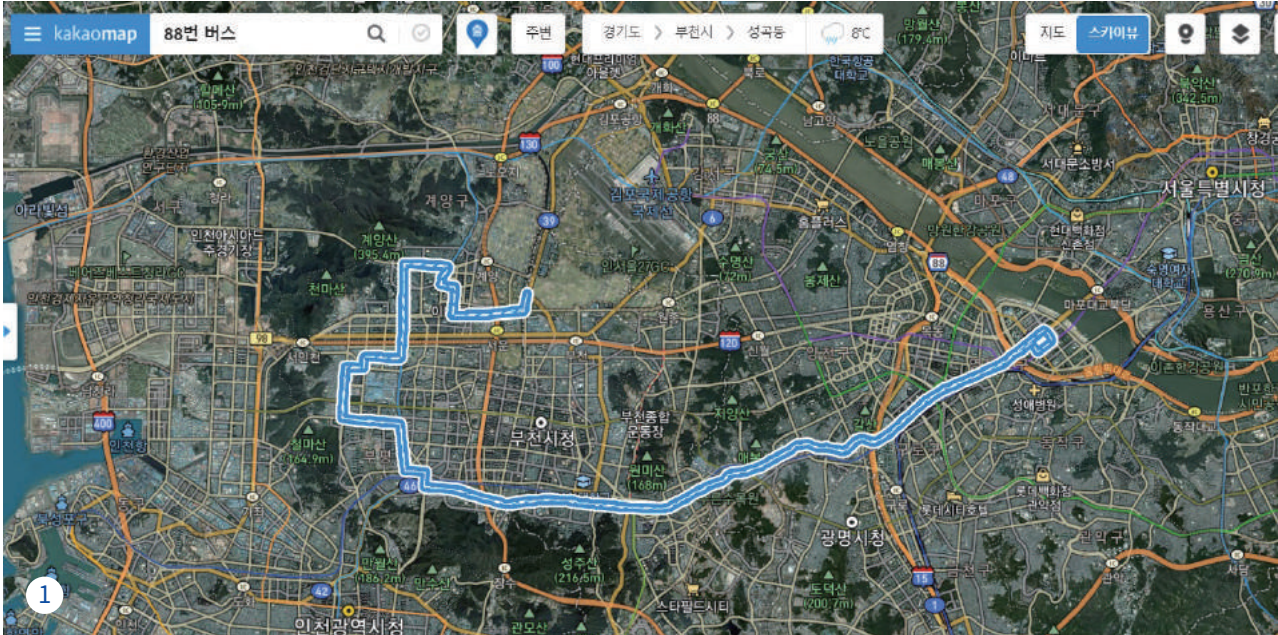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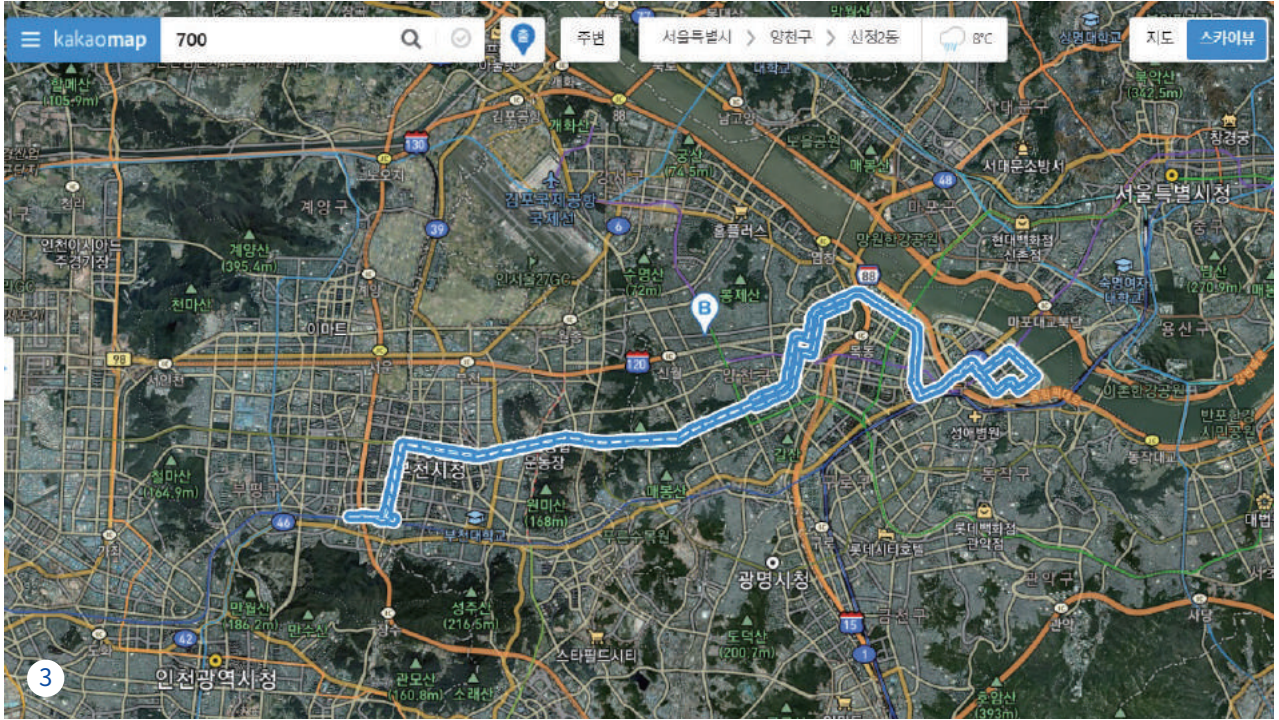


철도가 만들어준 “경인 京仁”이라는 아이덴티티



5. 경인로와 소신여객 : 도로의 <경인선>





6. 수도길 : 지하의 <경인선>



출발 이번 역은 부천-부평-영등포입니다.

1호선, 시민에게 예술로 다가가다

발제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거문고 연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국악을 알리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문고 자리 대표 김은선입니다. 부천문화도시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천시민으로, 그리고 지역 예술가로서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로서 1호선이 예술로 변화하는 부천시의 움직임을 발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제가 한 자락 불러봤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의 민족성, 정서를 담은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국가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던 월드컵 혹은 영화 속의 한 장면 등 추억이 떠올려질 겁니다. 이러한 우리 민요 아리랑처럼 지하철 1호선은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상징적 노선이자,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의 사연 한 두 개씩 있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양 도시를 경계에 두고 있어서 철도와 도로망 연결의 중요한 지리적



부천을 다른 도시와 연결해 주는 경인선(1호선)은 지금..

- 1. 역대금 인상: 술+담배+택스+난동 지하철 빌런 끝판왕 등장
- 2. 악취와 노숙인들
- 3. 잦은 열차지연 문제



특성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1호선은 도시 성장과 여러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 아픈게도 1호선은 술, 담배, 텍스크, 난동과 관련한 빌런이라든지 약취, 노숙인 문제, 열차 지연 문제 등으로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이를 희화한 온라인 게임, SNS 밈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료의 ‘서브웨이 파이터’나 ‘튜브 크라이시스’ 같은 게임들이 바로 희화화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호선을 이용하고 1호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1호선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의 확산과 변화를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등포구, 부천시, 부평구 3개의 도시가 협업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가, 시민, 부천문화재단의 협업으로 문화1호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단계로 고민할 수 있는지 토의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호선에 대한 시민 이야기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했습니다. 그리고 1호선 주변 문제를 다루는

부천을 다른 도시와 연결해 주는 경인선(1호선)은 지금..

1) <Subway Fighter>

내용 :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타는 비매너 승객과 격투하는 온라인 액션 게임



출처 : gameverse.com

2) <Tube Crisis>

내용 : 만원 지하철에 탄 주인공이 지하철의 민폐 승객들을 내쫓아 쾌적한 지하철 공간을 확보하는 게임

도시 간 협력 계기 마련



문화1호선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온, 오프라인 회의 실무진회의, 예술인 협력회의 등

문화1호선에 대한 부천 지역내 고민





1호선, 시민에게 예술로 다가가다



예술, 지하철 문화 활동과 시민 제안, 문화1호선 시민 서포터즈 활동 등의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 하반기에 문화1호선 로고와 이야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야기 공모는 ‘어메이징 1호선’, ‘1호선 히어로&빌런’, ‘1호선의 일상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이야기를 모집했고 50여 건의 이야기가 수집되었습니다. 발표자료처럼 ‘1호선의 그 남자’ 사연은 짝사랑에 관한 사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나의 연애’ 사연 등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용돈이 부족하던 시기에 지하철로 함께 오가면서 만든 정겨운 추억들이 담긴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을 지역 예술과 예술단체와의 결합을 통한 웹툰, 영상, 그림, 공연 등 2차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1호선을 이용하면서 느꼈었던 다양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부천의 모토를

시민 이야기 발굴 (50건)

시민 이야기 전시

웹툰, 영상, 그림, 공연 등으로 2차 콘텐츠화

제목 : 1호선의 그 남자

제목 : 1호선의 일상이야기

제목 : 1호선과 나의 연애

20대 중반 만난 남자친구는 2살이 어렸다. 그때까 나는 부천에서 노랑집으로 회사를 다녀 1호선을 항상 이용했고 남자친구의 집은 대방역 근처로 노랑집과는 1정거장 차이였다. 사회 초년생인 나와 프리랜서로 기타 강사를 하던 남자친구는 둘 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비싼 카피를 기기 보다는 지하철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

부천역 근처인 우리 집에서 대방역 근처 남자친구의 집까지는 급행으로는 25분, 완행으로는

시민 아이디어 제안 (20건)

작가와 시민의 만남

각 역사 전시실을 이용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힐링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의 주제)

지하철 엔터테인먼트

지하철 공연기획 운영팀 구성하여 매달 공연 전시 언더그라운드 페스티벌로 여름/겨울 프로젝트를 수행할 공연팀 모두가 모여 페스티벌 제작(지하철 운행이 끝난 시간에 1-2회 야간공연) 공연영상제작 홍보로, 다른 지역의 역사 주변 공간을 돌아보고 문화 1호선과 다른점 등을 인터뷰하여 시리즈로 제작

홍보송 제작

- * 부천과 부평, 영등포의 유지선들과 함께 홍보송 및 홍보영상 제작
- * 제작과 더불어 챌린지를 기획하여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여 홍보 (홍보영상은 지하철에 광고와 큐알코드 담아 챌린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문화 1호선 코스 기획

새 지역의 상권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 1호선 코스 기획

피아노 설치

각 역에 피아노를 직접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상하며 즐기는 기회를 제공 (피아노에 문화1호선 디자인을 랩핑하여 문화 1호선을 홍보)

1호선을 그리는 지역 작가

엄효진 만화작가

지하철 사람들'이란 작품에서 20년이상 편도 2시간 넘도록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그린 지하철 사람 기록



토대로 시민 제안과 아이디어를 담아서 진행해 봤습니다. 한 20여 건이 들어왔으며 어찌 보면 흔히 봤던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나, 다시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반짝 반짝하게 빛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 역사 전시실을 이용한 신진 작가와 시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작가와 시민의 만남’ 그리고 또 부천시, 부평구, 영등포구의 뮤지션들과 함께 제작하는 홍보송, 홍보 영상 제작과 더불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챌린지로 진행하는 홍보송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공연기획 운영팀을 구성하여 매달 진행되는 공연 전시, 언더그라운드 페스티벌인 지하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새 지역의 상권 특성을 활용한 문화1호선 코스 기획, 또 각 역에 피아노를 설치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연주도 하고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 감상하면서 즐기는 역사속 피아노 설치 등 20여 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 작가들에게도 학창 시절의 통학길이자 작업하며 오가던 1호선은 많은 추억과 소재적 영감을

1호선을 그리는 지역 작가

이효영 작가 전철의 다양한 모습 기록, 전시



1호선으로 성장한 부천역(남부역)에 대한 고민



중국음식점(67개소), 환전소 및 식품판매점(21개소 등)
외국인 보유 토지
1,841필지(2016) -> 4,844필지(2019년 기준)

중도입국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 대상 문화적 케어 사업(준비 중)
(지역예술인, 복지관, 학교, 재단 등 협력)

문화1호선이 되기 위한 제안

참여자 간 역량 강화

각 지역 사업 현황, 문제해결 방식 등 케이스 스터디)
타 도시투어 및 견학을 통한 현장 경험 증대

공간, 정보 등 상호 협력 이용

각 도시 공간 및 정보 공유

공동 이슈에 대한 통합적 담론화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문화 환경 공동 탐색 등
* 지속적으로 아동, 환경 등 지역 협력 이슈 지속 노력

예술 프로젝트 공동 운영

각 도시 예술인 워크숍 운영
(예술 교류 및 연합행사 등)



1호선, 시민에게 예술로 다가가다



주었는데, 그중에서 두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엄효진 작가님은 20년 이상을 평소 2시간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며 출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마주한 지하철 사람들의 기록과 전철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한 이효영 작가님의 작품을 발표 자료에 서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 1호선을 토대로 탐구하고 작업하는 예술가, 예술 단체들이 지역에 존재하고 지금도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1호선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전시점에서 문화 1호선과 연계하여 어떻게 확장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이슈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천 지역에도 중국계 외국인 거주자가 많습니다. 부천에서 처음 생긴 구도심의 상징적 역이었던 부천 남부역은 현재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곳으로 중국 음식점 그리고 환전소, 외국 식품 판매점 등이 최근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고자 문화다양성을 고려하고 접목하여 남부역 근처를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과 남부역 근처에 터를 잡은 외국인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위해 지역 예술가, 복지관, 학교가 부천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예술 친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는 아마 더 다양한 상상으로 예술친화적 해결 방안의 계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의 시민과 예술가, 부천문화재단이 만들어가는 ‘1호선, 예술로 다가가다’ 잘 들으셨나요? 문화1호선 프로젝트란 잘 짜여진 기획 행사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문화적인 1호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1호선과 관련된 주제를 지역 예술가와 재단이 협업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 과정을 잘 닦아가면서 가을철 알알이 성장한 벼를 수확해 토실한 쌀가마니를 나누듯 지역과 지역, 그리고 그 안에 시민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호선으로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각 지역과 재단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호선, 예술로 다가가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이번 역은 부천-부평-영등포입니다.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발제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세라하나코 (샌드아티스트)



조은정(샌드아티스트)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영상을 제작한 샌드아트팀의 샌드아티스트 조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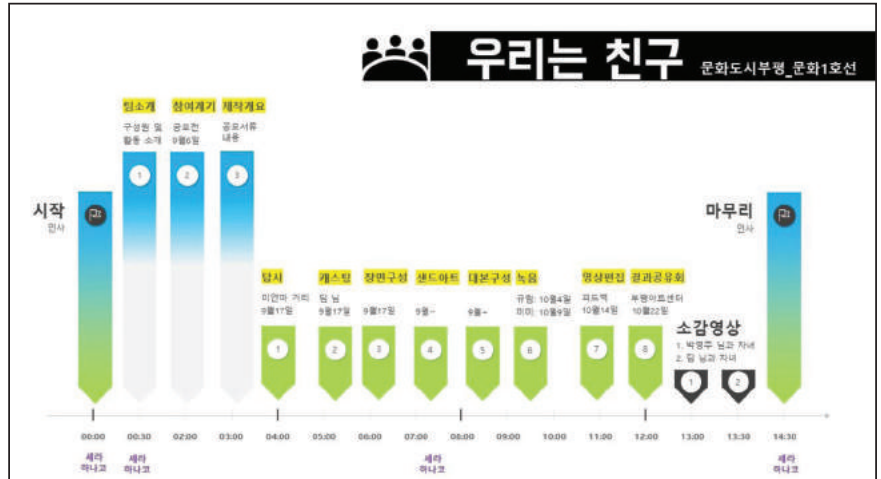
세라하나코(샌드아티스트)

샌드아티스트 세라하나코입니다.

조은정

샌드아트팀은 부평구문화재단 산하 구립도서관인 삼산도서관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된 샌드아트 활동은 삶의 활기와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 예술을 접하고 다양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만의 문화 향유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 9년 차를 맞이하며 문화 예술교육과 공연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우리가 영상 콘텐츠 제작 공모 응모 서류를 보낸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샌드아트로 영상을 제작하는 세라하나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라하나코 선생님은 공중파에 영상을 납품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기에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처음에 공모전의 키워드가 미얀마 이주민인 것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문화에 관한 미얀마 이야기라고 생각했기에 이주민이었던 세라하나코 선생님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차를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면접 인터뷰에서 미얀마 이주민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는 다문화센터장님의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얀마 이주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영상 편집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신청서 내용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샌드아트 동화 형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살아가는 미얀마의 어린이들,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하루를 샌드아트 동화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사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기회보다는 미얀마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기획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우리 작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우리는 친구'로 정하고 답사, 캐스팅, 장면 구성까지 순서대로 초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화도시 협력 네트워크 <공모1오션>

공모내용

- 부평역에 정착한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아이디어 (다큐멘터리, 플래인 영상, 이주민 인터뷰 등)
- 주제와 관련하여 5~10분 이내 분량으로 구성

공모일정

광고 및 접수 2021.8.23.(월) ~ 2021.9.6.(월) 홈페이지 공지참고 · 이메일접수	1차 서류심사 2021.9.7.(화)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심사 2021.9.10.(금)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최종발표 2021.9.11.(토)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8.25.(수)~9.6.(월) 13:00
- 접수방법 : 이메일 (musicitybp@gmail.com) 접수
- 제출서류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응모신청서 파일 참고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9:00~18:00(상시시간 12:00~13:00 제외)
 Tel 032-500-2046 H.P www.bpcf.or.kr

문화도시 협력 네트워크 <공모1오션>

03 제작개요

02 참여하기

우리는 친구

부평에서 친구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하루, 샌드아트 동화가 되다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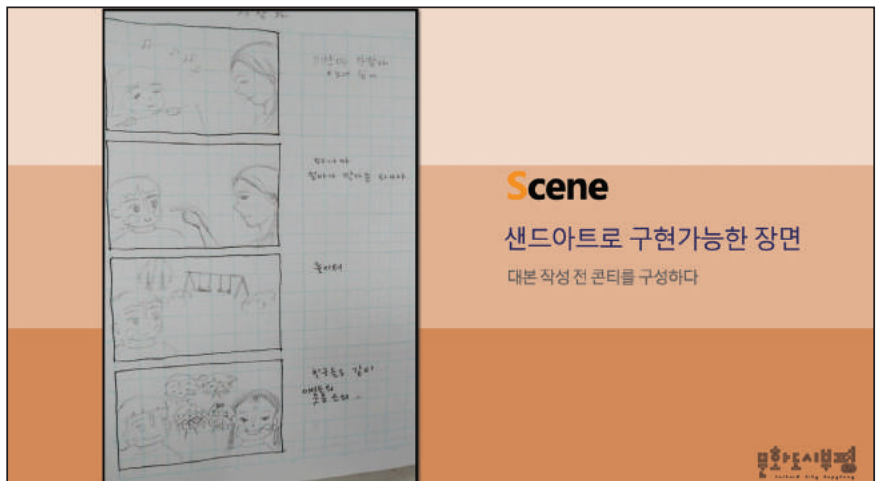
캐스팅

장면 구성

샌드아트

인천 부평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을 품은 도시입니다. 붐비는 사람들 가운데 영등포에서 부천으로 부평으로 지하철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1호선 부평역 앞의 미얀마 거리를 가보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모병원 앞에 있는 센터를 가보았으나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거리에서 식당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미얀마 이주민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왔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등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장님께 소개를 받은 미얀마 마트에서 추천해준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에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에 방문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동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딘 선생님과는 첫 만남에서부터 라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세라하나코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진지하고 따뜻한 상황에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우리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미안마어를 쓰는 어린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딘 선생님은 본인의 따님을 추천하면서, 둘째와 셋째 초등학생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대본이 나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미안마 사태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전해드리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한국인 어린이는 샌드아트 동아리를 같이 하는 박영주 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캐스팅이 일사천리로 되자 마음의 큰 짐을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성 설정을 정리하고 구성안을 기획했습니다. 샌드아트 특성상 화면을 입체적으로 쓰는 것이 불가하고 단면으로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배경 묘사가 현실과 똑같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진을 일부 배경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9년 차 활동을 하면서도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지만 부평의 거리를 표현하기에 사진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공들의 동작을 각각 작업하여 사진 배경 앞에 피사체로서 이동 액션을 넣었습니다. 이때 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타나카, 그리고 영상 속 자장가 부분을 만드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면 스케치를 마치고 세라하나코 선생님의 샌드아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발표는 세라하나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라하나코 (샌드아티스트)

샌드아트 제작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작품의 방향성이 정해진 후, 샌드아트의 콘티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규림이와 딘 선생님 따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주인공 두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콘티 구성은 학교 교실 장면, 미얀마 전래동화 부분, 미미의 집과 놀이터 장면, 엔딩 부분으로 크게 4가지로 작성했습니다.

10월에 대본이 나온 후 샌드아트 촬영과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박스 위의 강화 유리 위에 모래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고정된 캠코더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다 녹화하고 나중에 짧게 편집합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전래동화는 약 3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그럴 때는 복잡한 배경이 없어서 빨리 그린 편이어도 1시간 반

01 대본구성


문화1호선

미얀마


어린이




01 대본구성



언어



쿠데타



노래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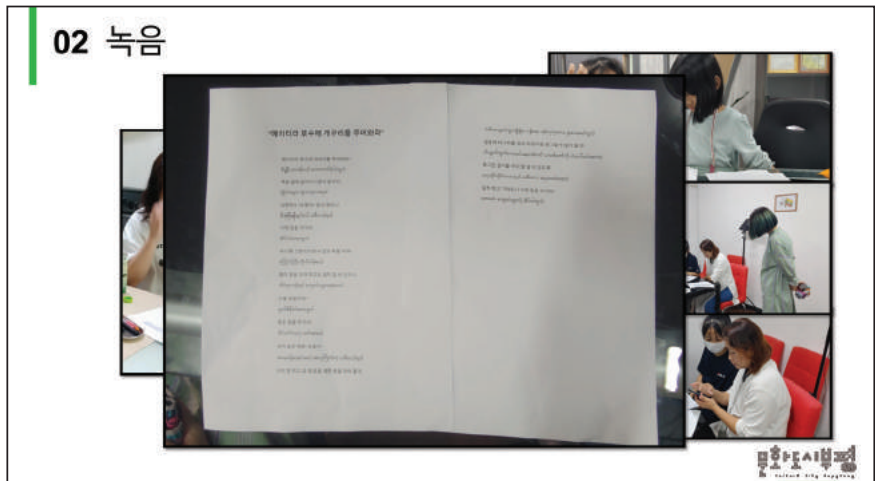


정도 걸렸습니다. 대본을 보고 대사 타이밍을 추측하면서 임시 편집을 하고 조은정 선생님께 공유했습니다.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문화1호선 세부 제작 과정으로 첫 번째는 대본을 구성했습니다. 대본 구성은 문화1호선 미얀마 어린이를 주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1호선을 품고 있는 부평구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헛되이 흩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공모전으로 인해 더욱 깊게 알게 된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평구에 다문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코 선생님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부평구에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얀마인이 거주하는 도시 부평. 그 속에 있는 삶의 고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은 해맑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특기인 동화적인 서사를 담기로 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동화라는 그릇에 담을 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를 사랑하는 부모이기도 하므로,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그 누구보다 높다고 자부하면서 이번에 부평구에 사는 미얀마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미얀마를 다시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언어와 쿠데타, 그리고 노래입니다. 언어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에 미얀마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어린이와 엄마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녹음작업을 해보니 연기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녹음 시기를 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현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고 심오하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야말로 언어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운율과 리듬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

03 영상편집

한땀한땀 아마추어의 손길로



04

부평구문화재단 교육
WE ARE FRIENDS



04 부평구문화재단 교육

- 1> 사업설명회(오리엔테이션)
- 2> 문화도시, 다문화교육
- 3> 영상 역량 강화 교육
- 4> 다문화 라운드 테이블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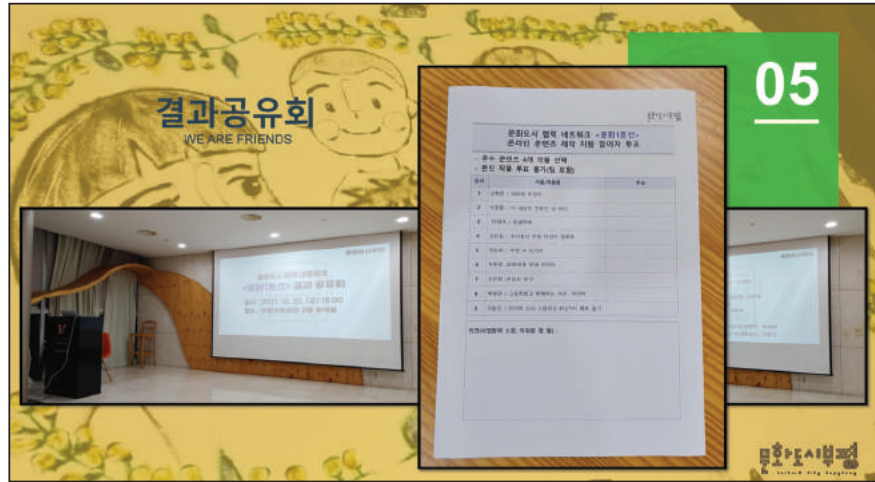


문화도시 부평, 우리는 친구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미안마 자장가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입니다. 하나코님의 샌드아트를 첨부한 대본을 완성한 후, 목소리 더빙에 참여하는 미미와 규림 그리고 딤 선생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모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미는 딤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규림이는 집에서 각각 녹음을 했습니다. 첫 리딩에서 대본을 함께 읽으며 많이 수정했습니다. 특별히 미미와 딤 선생님께 번역을 맡겼는데, 한국어를 미안마어로 미안마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번역은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장가는 사무실에서 한 번에 녹음하기 쉽지 않아서 집에서 여러 번 녹음하며 애써주신 딤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상편집에 들어갑니다. 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세라하나코 선생님, 박영주 선생님의 조언과 의견 덕분에 혼자 만든 게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든 영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구도 등 변화를 주기 위해 부평구문화재단의 교육을 받으며 편집 및 전환 등에 관해 큰 도움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부평구문화재단 교육입니다. 사업 설명회, 문화도시 영상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비전을 고려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선정된 부평구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게 돼서, 비단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추후의 사업에도 도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교육에서는 우리가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미안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아웅틴톤 선생님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짓던 강사 선생님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상으로서의 미안마인이 아니라, 이주민이 아니라, 삶에 깊이 연결된 관계로 느껴졌습니다.

영상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제작에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문화센터장님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세라하나코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문화도시센터가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맥락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월 22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결과공유회에 참여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참여자들의 내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여자 투표에서 저희가 우수 4팀 안에 선정되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같이 한 박영주 선생님과 자녀분, 미안마인이신 딘 선생님과 자녀분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영상 속 딘 선생님의 마지막 말은 '미안마의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10분 가량의 모래 이야기가 주는 약간의 울림이 여러분과 관객의 마음에 울리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 발 이번 역은 부천-부평-영등포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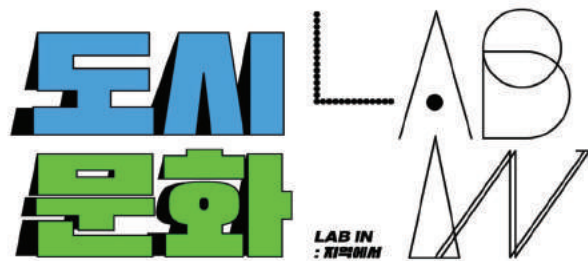
발제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영등포 도시문화LAB사업(2021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김성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공간의 소수자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획하면서 다뤄온 주제가 이 도시의 여러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퀴어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의 '도시문화LAB IN: 지역에서'라는 사업입니다. 영등포 지역에서 영등포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5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저는 사업 기획자로 참여하고 4명의 시각 예술가가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방아란 작가는 다큐멘터리 필름 작업을 하고, 남오일 작가는 다큐멘터리 사진 포토그래피 작업을 하고, 김민지 작가는 방송작가이자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최정은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나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등포에도 처음 왔습니다. 최정은 작가는 영등포에 거주하지만 한 10년 정도 런던에 있다가 작년 말쯤에 온 것으로 알고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김성빈

방아란

남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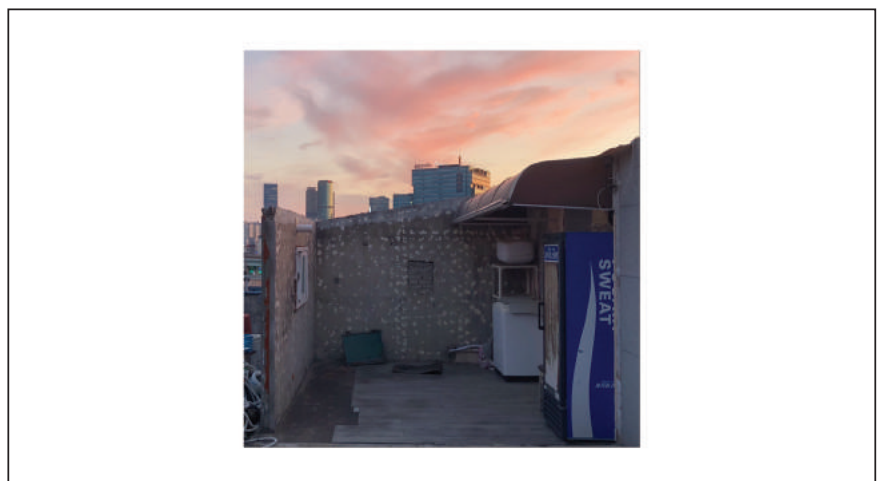
최정은

김민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까
지 영등포랑 크게 접점이 없는 상
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영등포에 왔을 때 가
장 주목한 지역은 영등포역 일대
였습니다. 1호선의 많은 역이 준
공업지대여서 역 앞 타임스퀘어
처럼 높은 빌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앞에는 옛날 작은 공장
들, 특히 위 쪽에는 흔히 유리방이
라고 하는 성매매집결지와 아래
쪽에는 쪽방촌이 굉장히 혼재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
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런 인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이
곳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영등포와 접점이
없었기에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
는 활동가와 작가들을 만나서 많
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집
결지 여성들의 탈업을 지원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활
동가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고, 영
등포 문래동 지역을 기반으로 활
동하는 현소영 작가의 도움도 많
이 받았습니다. 또한, 전주 선미
촌 성매매집결지에서 도시재생사
업을 하는 장근범 작가를 통해서
도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
게 하다 보니, 활동가와 작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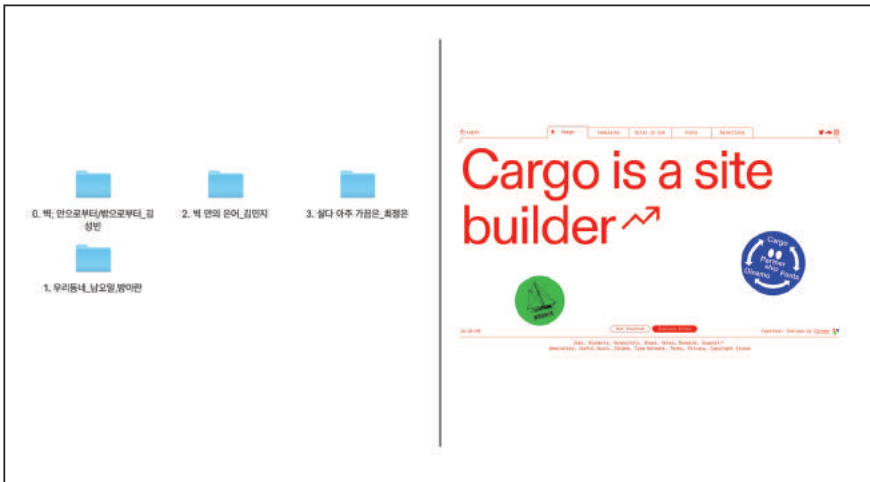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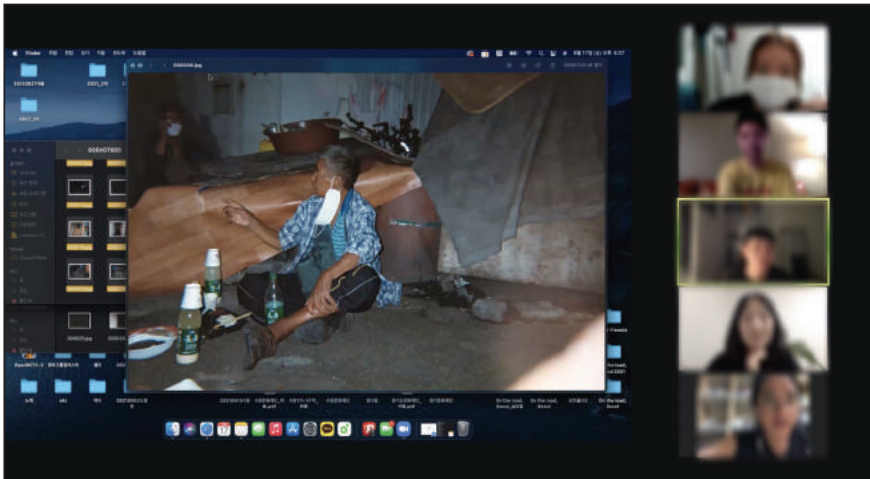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아무래도 각자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과 별개로 우리의 방향이 누군가를 대변하거나 다시 반복하는 듯한 인상에 관해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움 없이 우리끼리 걸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볼까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특히, 쪽방촌 일대와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방문하고 걸었습니다. 발표자료에 사진은 쪽방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한 평 남짓한 공간 내부 절반에 가벽을 세워서 쪽방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층고가 여기보다 낮습니다. 낮은 건물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서 허리도 펴 수 없을 정도의 가건물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은 타임스퀘어와 바로 마주한 유리방이라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일대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 폐휴업 상태였습니다. 그 앞 입주협의회 같은 곳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해서 휴업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도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막아놓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벽에는 유리 조각들을 박아놨습니다. 마치 그 철장으로 ‘여기는 너희들이 넘어오면 안 돼’라는 공간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방 앞에는 현금 지급기가 놓여 있는데, 이런 것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다니면서 굉장히 모종의 위축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 자주 갈 일이 없는 공간인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있으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나 이곳을 살고 계신 분한테 좀 뭔가 일종의 폭력이라고 느껴질 것 같다’는 그런 자기 검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기는 했지만 사실은 시선도 거의 정면만 주시하고 조심 조심 앞만 보고 가는 식으로 몇 번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영등포역 건너편에 있는 한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고시원 옥상은 불법 증축한 주거시설로

사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철거를 한 모양새였습니다. 발표자료에서 보이는 사진 속에 하얀 것은 벽지 자국입니다. 그 옆에도 가전제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남오일 작가가 찍었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벽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은 많은 게 교차하는 단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 공간이 벽이라고, 벽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키워드로 잡고 여기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일대를 우리의 일종의 심리적인, 시각적인 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벽의 안쪽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 벽의 모양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감각하는 과정을 담아보자는 개념을 잡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오일 작가랑 방아란 작가가 쪽방촌 일대 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똑딱이 일회용 카메라를 배포하면서 혹시 이 일대를 찍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쪽방촌 일대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곧 내년 초쯤에는 샐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사라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쪽방촌의 주민들이 한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새로 생긴 생활주택으로 다시 이주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유주나 건물주 등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쪽방촌에 계신 기타맨이라는 분이 촬영하셨습니다. 기타맨이라는 분은 원래 쪽방촌의 실세였던 존재입니다. 이 쪽방촌에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세였다가 지금은 왕초라는 분에게 실세의 자리를 넘겨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에서 표상하는 시선과 이야기”

문화 1호선



1호선 영등포역과 도시 공간의 소수자성



주고 뒷방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부러진 영웅’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수거한 카메라에서 인화한 사진을 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쪽방촌의 주민들은 직접 사진의 제목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일종의 아카이브 북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같이 담길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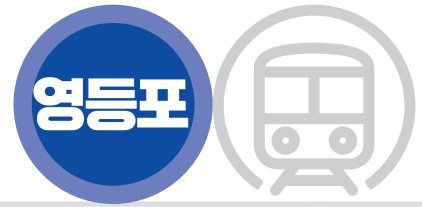
김민지 작가는 벽 안의 은어라고 하여, 특히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과 성구매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들을 모은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주소가 바뀌는 사이트입니다. 작가는 그런 곳을 추적하면서 실제 성구매 경험자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언어들을 수집하여 언어의 층위를 나눠서 어떤 식으로 폭력적이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언어로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며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은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랑 영화 연출을 하는 분인데, 매일 매일 시 챌린지를 하면서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씁니다. 총 63편의 시를 썼으며 시집의 형태로 담길 예정인데 시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쪽방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좋은 시들입니다.

남오일, 방아란 작가는 ‘우리동네’라고 해서 쪽방촌 일대를 주민들이 직접 기록한 것과 방아란 작가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작업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 아카이브 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남기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웹사이트를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완성하지만 실제로 책을 받지 못한 분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카고컬렉티브라는 플랫폼으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감리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처음에 ‘도시문화LAB IN: 지역에서’라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주제는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에서 표상하는 시선과 이야기’였습니다. 이 표제어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영등포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어느 도시든 그렇겠지만, 영등포는 역 주변에 굉장히 혼재된 공간뿐 만이 아니라 대림동에 이주민 밀집단지도 있고, 여의도에 가면 굉장히 높은 빌딩의 경제지구가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이 혼재된 지역인데 과연 이 다양함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표상되고 있는지, 좀 확장해서 서울이라는 공간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수자와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화1호선이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처음 발제를 제안 해주실 때 1호선이 가진 흔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화1호선 사업이 참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관 입장은 아무래도 인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대중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보기에 뭔가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걸 좀 좋게 만들자, 이러한 것이 도시 발전이나 도시 개발 이런 부분에서도 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수많은 행정적인 철학적인 전문가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이제는 사라질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표상되지 못하고 가시화되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과 집단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느끼고 감각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기록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5명이 7월부터 영등포에 처음 와서 이곳을 감각하고 그 과정을 담은 작업을 진행하며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있는 분께는 영등포문화재단을 통해 자료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좌 장: 최정한

부 천: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부 평: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영등포: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박만식(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전문가: 김시덕 (도시문학학자)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제가 작년 초부터 문화1호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제안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인천에서 84년도부터 인천 부평을 오가면서 두 딸을 키워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수 지역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에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군포 지역 등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온 곳이 부평구였고 80년대 부평은 노동운동의 메카였습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저에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 1호선이었고, 또 하나는 경인국도로 그 당시에 영등포구에서는 총알택시가 있었습니다. 부평까지 한 10여 분이면 들어가는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신여객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다니는 삼화고속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인천 부평구에 살면서도 서울을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도시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1호선 신도림 같은 경우엔 푸시맨이라고 막 뒤에서 밀어 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부터 아침에 출퇴근 통학하는 사람들 모습, 공장에 가는 사람들 이런 게 막 뒤섞인 풍경이 제 머릿속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평의 발표 내용을 보니 당시에는 미안마 공동체가 없었고, 오히려 이농 세대들이 70년대부터 구로에서부터 123공단 부평 4공단, 주안 56공단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서 변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의 주거 문제를 받아내는 배드타운 기능이 점점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평구 같은 경우, 특히 미안마를 다루게 된 어떤 특별한 접점이 있을까요?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제가 올해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문화1호선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부평역의 광장문화입니다. 그런데 부평의 광장문화는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기능이 상실된 배경은 또 무엇인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시덕 선생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공단이 막 들어서면서 서울이랑 주안, 부평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평이 확장되었고, 부평이 주민의 확장을 넘어 타 국가의 주민까지 받아내는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얀마에 초점을 두었냐고 한다면 지금 미얀마의 쿠테타 사안이 있기도 합니다. 부평 안에서 미얀마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 여기 함께하고 계신 일본 분들은 어느 정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이 주어지고 같이 함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부평역을 중심으로 밤만 되면 거리 바닥이 빨갭게 물드는 미얀마 거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란 취지에서 문화1호선 사업의 시민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제는 부평역 중심에 있는 미얀마인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1호선 사업에서 왜 굳이 1호선의 미얀마에 주목했느냐 한다면 부평에서 지금 살아가는 주민과 새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교류의 지점을 문화와 문화로 이어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잇는데 부평 안에서 서로 문화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이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김기석 부장님도 지역 간 협력 사업 중에서도 문화1호선 사업에 대해 애착이 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세 지역에서 문화1호선 관련된 고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두 번째 포럼의 의미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포럼이 시작의 깃발을 올렸다면, 오늘 포럼을 통해 함께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신 김시덕 선생님께서 세 지역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들으니 나름의 사명감도 생기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먼저 김시덕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도시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시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기록하지만, 맥락과 목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를 기록하고 아카이브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나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하는 분들을 뵈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기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도시재생도 있고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분들이 기록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기 좋지만, 기록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이 기록이 도시재생의 전부인가 혹은 무엇을 위한 도시재생인가, 무엇을 위해 기록하느냐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술가와 많은 접점을 가진 기록이 곧 예술인가에 대해 미학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관에서 예술가들에게 지역에 내려가서 기록하고 의무적으로 만나라는 식으로 등을 떠미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만남이고 무엇을 위한 기록인가 싶었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기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관이 기록 사업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기록하는 것은 제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김은선 작가님과도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문화1호선과 관련해서 세 지역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문화1호선이 새롭게 출발을 했으니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 교류부터 시민 행사까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 지역이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 지역이 즐겁기 위해서만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은선 작가님 발표처럼, 1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문제와 1호선역 주변이 가진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술가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선 작가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부천과 부평 예술가들은 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예술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와 예술가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 더불어 어려운 점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예술인에게 타 지역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과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예술가들이 지역 간 협력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아무래도 예술가들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자신의 장르와 관심에 따라 협업하고 싶은 예술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도시 간에 협업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평에서 부평의 예술가들이 추천하는 부평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명소와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콜라보를 하거나 협업할 때 장르는 댄스나 악기, 또는 시각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만 협업을 요청했을 텐데 이렇게 도시간 만나다 보니 더 시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장르적으로도 확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각자의 개인적인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원사업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장르를 표현하되, 도시가 담겨 있고 그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작업물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목표로 두게 되니 제가 평소에 해왔던 작업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작업물이 나오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에서 몸담고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잠들어 있는 일종의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작업으로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인선의 세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두 곳이 있어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김시덕 선생님이 말씀하셨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듯이 이러한 활동이 단지 프로젝트를 위한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분으로 치중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조은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작업 하면서 이후 미얀마 공동체와의 관계 부분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지향점이 생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저희 결과를 보자면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카이빙도 그러하듯 모든 기록이 결과에 치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작업의 과정에서 진심으로 다문화를 만났다는 것에 큰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기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공연과 교육 활동에 묻혀 있어서, 성장을 하려면 나의 시간에 다른 것을 찾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을 통해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등포 지역에서 발표해주신 김성빈 퍼실리테이터님도 소수자에 관한 관심을 많이 두고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는 성에 관한 소수자 외에도 다문화에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다문화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멀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험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성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결과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예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글과 영상, 음악으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영등포의 프로젝트에서 성매매집결지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직접적인 연결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영등포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김은선 작가님이 앞서 말씀하시듯 작가로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주제 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기존에 하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만나는 사람의 폭도 좀 좁아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또 어떠한 발생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제시한 표제어도 있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작은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우리가 당사자성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겪어본 삶이 아닌,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평소에 살던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처음 발을 디딘 공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교차하고 접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고 저희의 결과물이 책자와 웹사이트로 나오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등포문화재단에 이야기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에 온 예술가들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물이 안 나오고 끝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었습니다. 마음 한 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오케이 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됐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초기부터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록을 항상 같이하면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활동을 하고나니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자연스럽게 영등포문화재단의 박만식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오늘 포럼에서 서쪽의 전부였던 부천군과 서울 서남부권 전체였던 영등포구를 알게 되어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방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문화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역을 일궈 나가다 보니 영등포도 그렇고 부천시, 부평구도 도시가 발전하는 곳에서 교통은 가장 큰 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주하고,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해가면서 많은 도시가 거대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인천시부터 서울 영등포구까지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부평구가 미얀마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듯, 영등포구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외면한다고 표현하는 성매매집결지, 쪽방촌이 있는데 기존 공간들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고, 원도심이 구도심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세 도시의 공통적인 도시사회적 이슈로 보여집니다. 이를 혼자 풀어나가기보다는 세 도시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문화1호선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는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1호선 포럼 행사를 알리면서 주변의 수원, 도봉, 종로, 의정부까지 많은 도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오늘 발표해주신 지역별 예술가들의 활동 결과를 통해서 그 갈래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도시와 함께 걸을 만들어가고 더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저는 7월에 센터에 결합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해가는 느낌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세 도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1호선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술가들은 경계 없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인접한 도시를 넘나들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문화1호선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문화7호선으로도 세 도시가 다 연결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과 7의 느낌이 좋은데, 앞으로 사업에서 어떻게 1과 7을 한번 엮어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다른 도시들로 계속 확대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먼저 시작한 우리 세 도시가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순 프로그램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의 시간을 위한 밑거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답을 제시할 수 없겠지만, 문화1호선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말씀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문화1호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회의에서 김시덕 선생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앞으로 김시덕 선생님께서 다양한 섹션별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어떨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김시덕
도시문화학자

제가 경인선을 본격적으로 타고 관찰하면서 느끼는 핵심은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역을 빼놓은 경인선은 있을 수가 없어서 구로문화재단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열고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예술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예술가가 발표해주셨는데, 샌드아트 작품에서 자장가가 울리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악기로 반주를 꼭 입혀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김성빈 퍼실리테이터님께서 보여준 장면 중 벽의 안과 밖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는 소재가 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발표는 세 사람이 했지만,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술가가 함께 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계시므로, 그 단계가 점점 쌓여가면 그야말로 문화1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한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구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로에서 경인, 경수가 갈라져 나옵니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도시로서 영등포구가 중요하듯이,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로가 중요하고 그다음 경수라인으로 나가는데, 이제 수원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고 내년에 판을 키우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끄집어



왜 우리는 문화호선을 이야기하는가 (토의 및 Q&A)



내는 모자이크 작업 같은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1호선의 새로운 퍼즐들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단지 문화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 정의하며 새로운 미래가치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만식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지금까지 2021년 문화 1호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문화재단과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그리고 서울 영등포문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30초 정도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장

김성빈 퍼실리테이터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 누군가를 대변하게 되는 역할이 생겼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대변의 상대는 누구였을까 행정 혹은 재단, 아니면 시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시덕 선생님께서 시민들과 경인지역을 걸어서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문화1호선 세 지역과 구로와 함께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선생님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선
부천문화도시협의회 위원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팀장

오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최정환 선생님이 하다 보니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천의 김기석 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의 문화1호선의 풀이가 기대되고, 앞으로도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조은정
샌드아티스트

12월에 부평구문화재단의 영상상영회가 진행되는데, 관객과 대중을 만나는 상영회로 미얀마 분들을 포함한 관객과 대중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라 더욱 기대됩니다.



김성빈
퍼실리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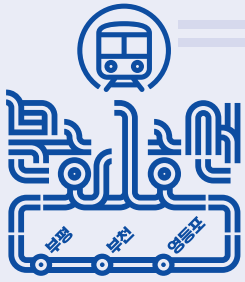
김기석 부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대변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다는 그리 되는 것이 좀 싫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보통 작업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황현산 선생님의 말씀 중에 '예술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은 쓸모가 없는 거를 만드는 것이다. 아름답지만 쓸모가 없는 것. 그리고 그 쓸모를 찾아내는 게 이 사회와 문화의 발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김시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싫어서 조금 더 저희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시덕
도시문화학자

제가 전국을 답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 경인입니다. 경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최정환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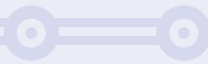
작년부터 김시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딱 1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소득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형식도 파티처럼 예술가와 시민 크리에이터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오늘 포럼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문화유산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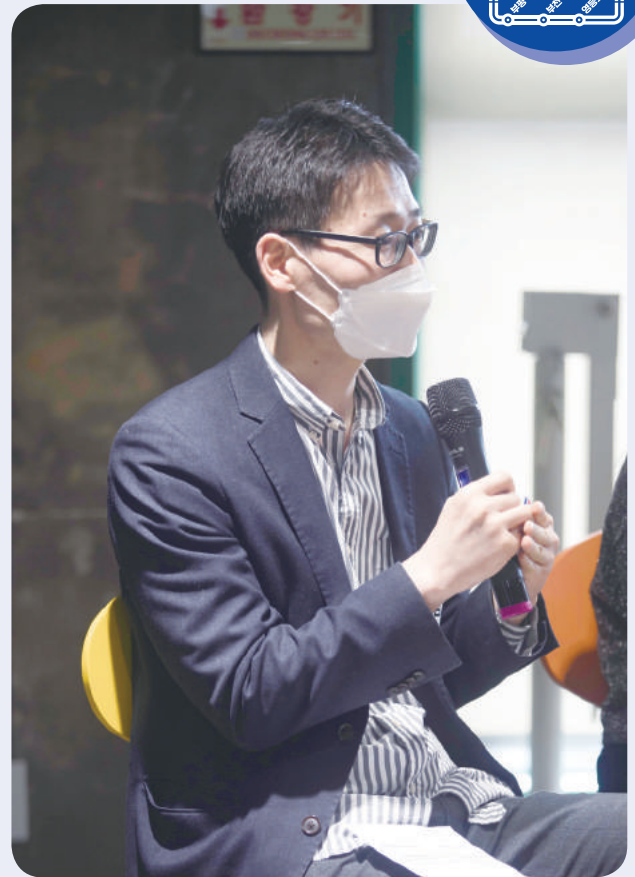
PHOTO





PHOTO





이번 역은 문화1호선입니다

2021 문화1호선 포럼 자료집

발행일 2021.12.17

발행처 영등포문화재단

공동기획 문화1호선 프로젝트 총괄기획자 최정한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박만식, 장혜윤, 현지혜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김기석, 박효빈, 박미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황유경, 이미숙, 문경선

디자인 첫번째별디자인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0725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 3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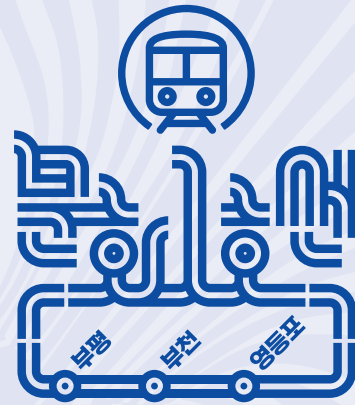
www.ccydp.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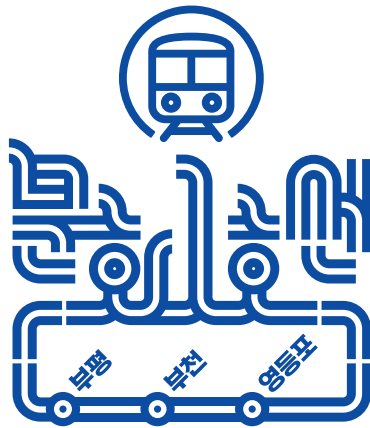
<https://www.facebook.com/colorfullydp>

T. 02-2629-2200

F. 02-2068-9496

본 책의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문화유산선입니다**

2021 문화유산선 포럼 자료집



영등포문화재단
YEONGDEUNGPO CULTURAL FOUNDATION